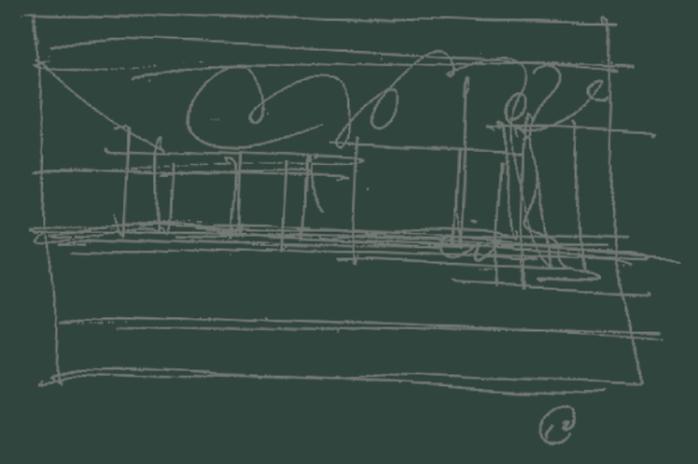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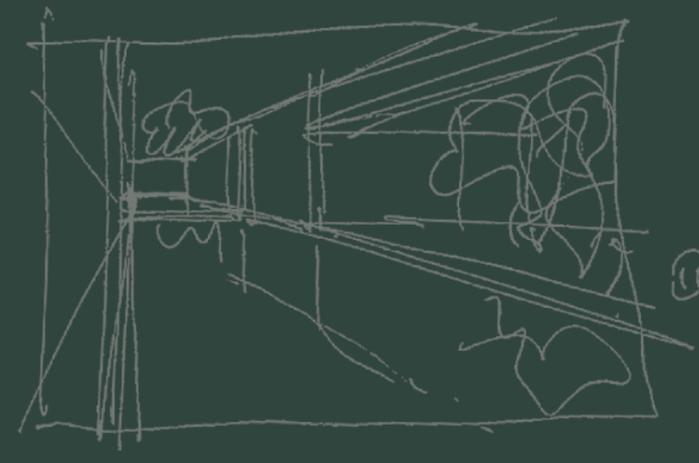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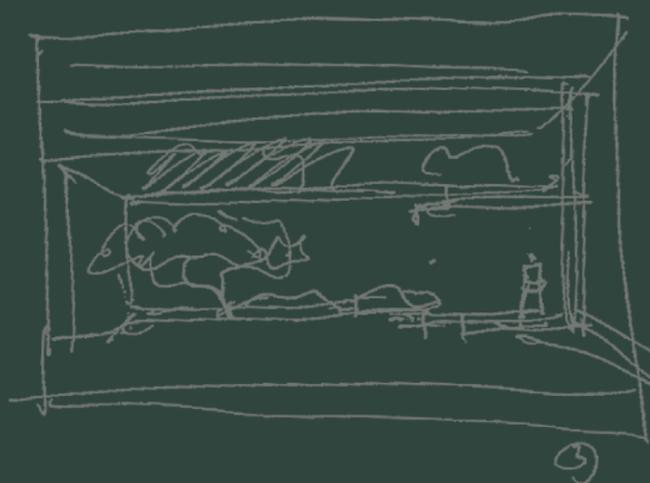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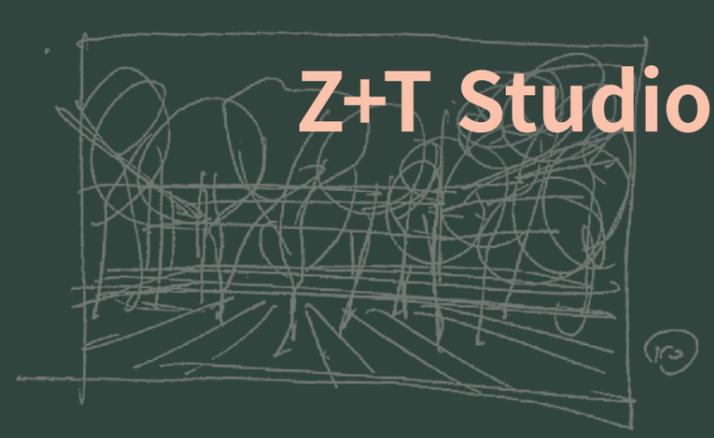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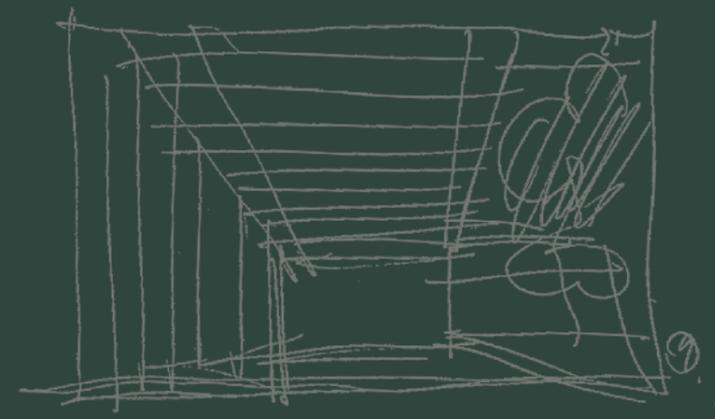


통권 409호
2022년 5월호
특집

Z+T Studio



profile

philosophy

project

- 탕산 채석 공원
- 아란야 공원
- 도리 공원
- 덩원 디스커버리 공원

- U-센터 광장
- 취장 크리에이티브 서클
- 주주리 정원
- 우전 아리라 호텔
- 매직 국제 유치원

interview

참여와 실험이 그리는 경관 최영준

2009년 설립된 Z+T 스튜디오(이하 Z+T)는 디자인 아틀리에와 세 개 연구소—아트 스튜디오, 바이오필릭 랩 (Biophilic lab), T-랩—로 구성된 컨소시엄 그룹이다. 독특한 구조와 다학제간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정교하게 완성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중국 최신 조경을 이끄는 팀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양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도 적당한 규모의 디자인 아틀리에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설계 분야의 과잉 성장과 양적 지배 추세에 맞서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서는 미니멀한 디자인 감각으로 자연과 인간의 재결합을 추구하는 Z+T의 근작들을 살핀다. 큰 규모의 공원들은 Z+T의 주요 설계 어휘인 참여 생태학(participatory ecology)을 실현하는 생물 친화적 관점의 지속가능하고 참신한 설계를 보여준다.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해법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경관을 만들어낸다. 쇼핑몰 옆 광장, 호텔, 건물의 중앙 뜰 같은 상업 공간에서는 디자인의 화려함과 간결함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을 찾는 섬세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설계 실현 가능성, 새로운 소재,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꾸준히 탐구해온 결과를 프로젝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중국 문화와 조경 설계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는 램디에이지(Lab D+H)의 최영준 소장과의 인터뷰는 낯선 대륙의 프로젝트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Z+T를 이끄는 장둥(Zhang Dong)과 탕쯔잉(Tang Ziying)은 올 여름 광주에서 열리는 '제58차 세계조경가 대회'의 기조 강연자이기도 하다. 피상적 스타일과 형식적 설계를 지양하고자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Z+T의 작품들이 2022 IFLA를 즐겁게 기다리게 하는 초대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진행 김모아, 금민수, 이수민 협력 최영준, 조재연 디자인 팽선민

회복탄력적 자연과 사람을 잇는 촉매



장둥(Zhang Dong)

1998~2000 Turenscape, 중국
 2001~2003 EDSA Oriental, 중국
 2005~2007 Stephen Stimson Associate(SSA), 미국
 2007~2008 Martha Schwartz(MSP), 미국
 2009~ Z+T Studio, 중국

탕쯔잉(Tang Ziying)

1998~2000 Turenscape, 중국
 2001~2003 EDAW, 중국
 2005~2007 Stephen Stimson Associate, 미국
 2007~2008 Martha Schwartz, 미국
 2009~ Z+T Studio, 중국

Z+T 스튜디오(이하 Z+T)는 2009년 장둥과 탕쯔잉이 중국 상하이에 설립한 조경설계사무소다. 다양한 접근 방식을 이용해 기본계획, 연구, 공원, 도시 발전 전략 등 여러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조경과 점차 도시화되는 환경 사이에서 미학과 정원에 관한 전통적인 이해를 넘어 지역 다양성과 정체성을 존중하고 포괄하는 촉매이자 엔진이 되고자 한다. Z+T는 핵심 가치인 자연과 살기 좋은 커뮤니티의 연결, 경관 회복탄력성과 사회 생태의 지속가능성 강화라는 핵심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법을 쓰고 있다. 미국조경가협회상ASLA General Design Honor Awards을 비롯해 중국과 전 세계에서 많은 상을 받았다.

Z+T는 조경 디자인 아틀리에, 아트 스튜디오, 바이오필릭 랩Biophilic Lab, T-랩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조직으로 조경가, 예술가, 제작자, 원예 전문가, 생태학자가 함께 일한다. 장둥과 탕쯔잉은 스튜디오를 설립하기 전 미국과 중국에서 교육 및 디자인 경험을 쌓았는데, 이는 동서양의 관점과 감수성을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독특한 구조와 다학제간 협력은 복잡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며 혁신적인 최첨단 디자인 개념을 발전시키는 엔진 역할을 한다. 두 조경가는 복잡하고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적정 규모의 아틀리에를 운영하며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번역 심지수

자연에 바탕을 둔 세 가지 철학



Z+T 스튜디오에서 조경 설계는 자연의 예술적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을 다듬는 것을 의미한다. 각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조경 요소를 추출하고 다시 놓는다.

자연 생태계에 대한 존중과 정제된 자연

자연 생태계를 존중하는 것은 중국의 철학이다. 어떤 변화를 고려하기 전에 기존 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대 생태 기술을 적용해 대상지에 가장 적합한 개발을 진행한다. 고밀도 개발이나 오염된 환경을 건강한 회복을 목표로 재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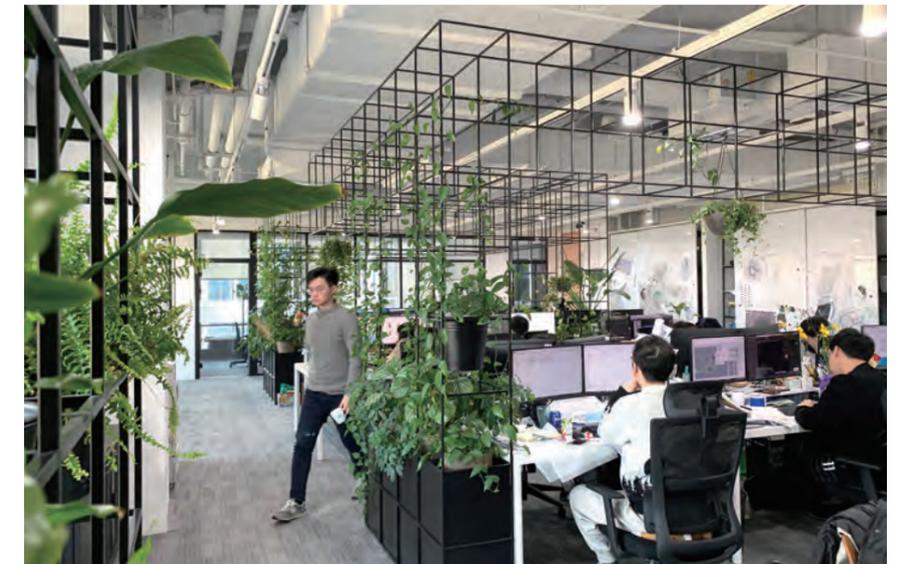
복원된 생태계와 부지의 장소성

산업화와 개발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지는 다르다. 모든 혁신은 기후, 바람, 빛, 그늘 등 그곳만의 고유한 요소로부터 시작한다. 복원된 대지는 공간 구성과 설계 요소를 통해 정체성을 갖게 된다.

변화한 땅과 그 땅의 기억

산업화는 인간과 환경 사이에 장벽을 만들었다. 설계되지 않은 공간이든 설계된 공간이든 인공적인 것들로 가득하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복잡성과 단순함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며 땅의 본질을 살핀다. 정제된 조경 요소를 통해 사람과 물, 햇빛, 식물의 관계를 다시 잇고자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경 설계는 (1) 커뮤니티의 삶과 자연을 잇는 연결고리, (2)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에 관한 비전을 담은 그릇, (3) 다양성, 자존감, 정체성을 포괄하고 풍부하게 하는 촉매이자 엔진, (4) 자연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다. 번역 심지수





Z+T

탕산 채석 공원

Tangshan Quarry Park

글 Z+T

Landscape Architect Z+T Studio, Landscape Architect
Lead Designer Zhang Dong, Tang Ziyang
Designer Team Zhang Qing, Xu Min, Chen Yifan, Yuan Shuai, Yang Yupeng, Liu Xin, Bian Shaohao
Installation Design Z+T Art Studio
Designer Team Liu Hongchao, Zheng Jialin, Fan Yanjie, Sun Chuan
Location Nanjing, China
Area 40ha
Completion 2019. 3.
Photograph Zhang H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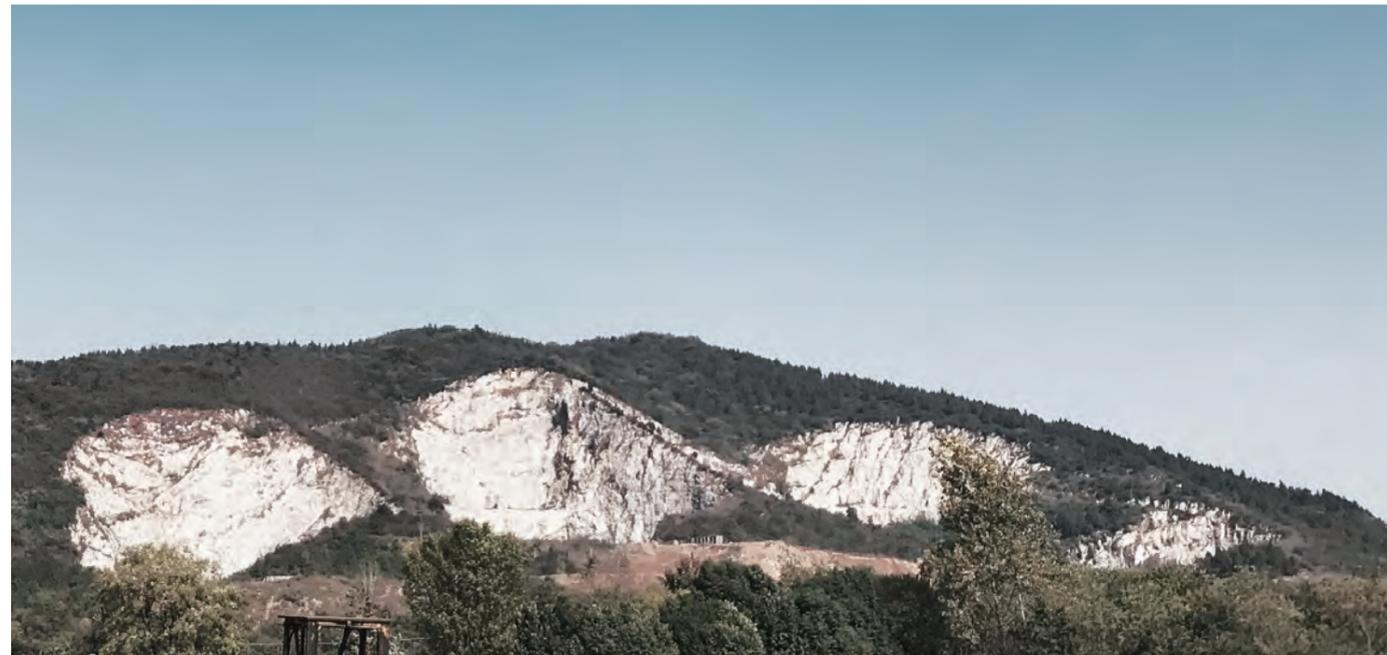
과거 버려진 채석장이었던 탕산 채석 공원Tangshan Quarry Park은 실험적 조경 설계가 인간의 활동 목적을 어떻게 바꾸고 지역 커뮤니티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40헥타르에 달하는 대상지는 난징Nanjing에서 한 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탕산국립관광단지 남측에 위치한다. 또한 이곳은 동남대학교Southeast University가 계획한 탕산온천타운의 새로운 휴양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중국의 주택도시농촌개발부Ministry of Housing and Urban-Rural Development는 도시 개선 및 생태 복원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의 목적은 도시 문제를 관리하고 환경의 질을 개선해 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버려진 채석장은 생태 복원과 도시 치유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토다오 디자인Totao Design과 동남대학교, 클라이언트와 협업하며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고 부지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개비온 형식으로 만든 공원 입구

탕산 채석장 전경



1. 보행자 입구
2. 차량 출입구
3. 입구 코리더
4. 방문자 센터
5. 주차장
6. 티 하우스
7. 썬데 호수
8. 빛물 정원
9. 꽃의 바다
10. 주 산책로
11. 잔디 극장
12. 터널
13. 폭포
14. 관측대
15. 절벽 산책로
16. 하늘 산책로
17. 트램펄린
18. 미끄럼틀
19. 그네
20. 채석 놀이풍경(mining playscape)
21. 스테리-스카이 레스토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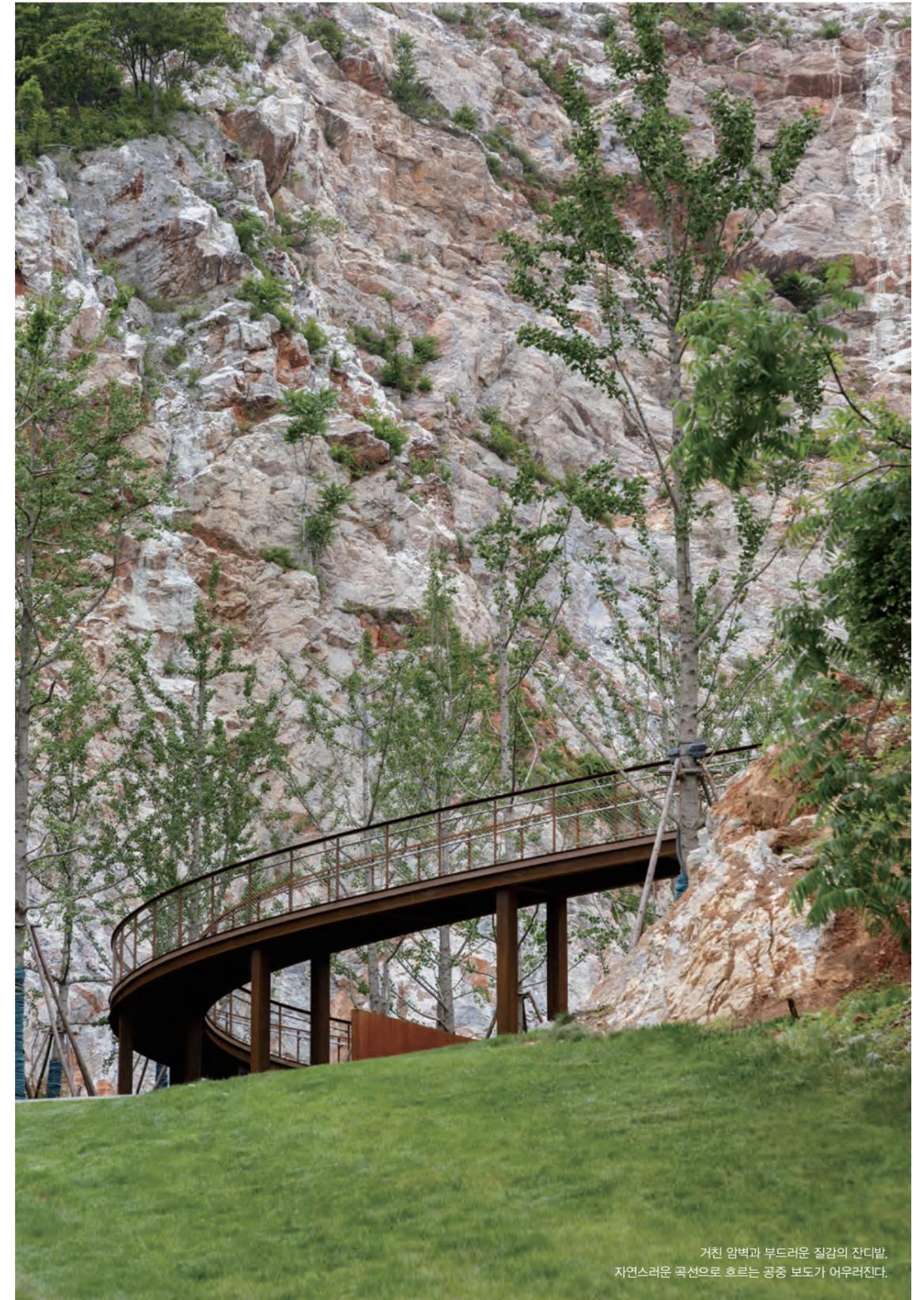


공중 보도를 건너며 채석장을 색다른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다.

기존 지형과 수계에 따라 땅을 정지해 네 개의 채석장과 초원, 놀이 공간, 세 구역으로 구성된 산데 호수 Sandie Lake를 비롯해 활기가 넘치는 공간을 마련했다. 독특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각 채석장에 다른 기능을 부여했다. 깊고 은폐된 동쪽 채석장은 조용하고 편안하게 온천을 즐길 수 있는 호텔 내부 구역으로 탈바꿈됐다. 주변을 향해 열린 넓은 서쪽 채석장은 음악 축제와 캠핑을 즐기기에 완벽한 공간이다. 중앙에 위치한 채석장 두 곳은 시각적으로 돌보이는 공간으로 대중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채석장을 바라보게 한다. 또한 안전, 비용, 유지·관리 및 생태적 영향, 다양한 경험을 고려한 하이킹 시스템을 구축했다. 안전 문제는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다뤘다. 채석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엔지니어, 사면 보호 전문가와 함께 침식 제어 장치를 고안했다.



압반 위로 흘러내리는 붉은 흙과 조화를 이루는 공중 보도의 코르틴 스틸



거친 암벽과 부드러운 질감의 잔디밭,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흐르는 공중 보도가 어우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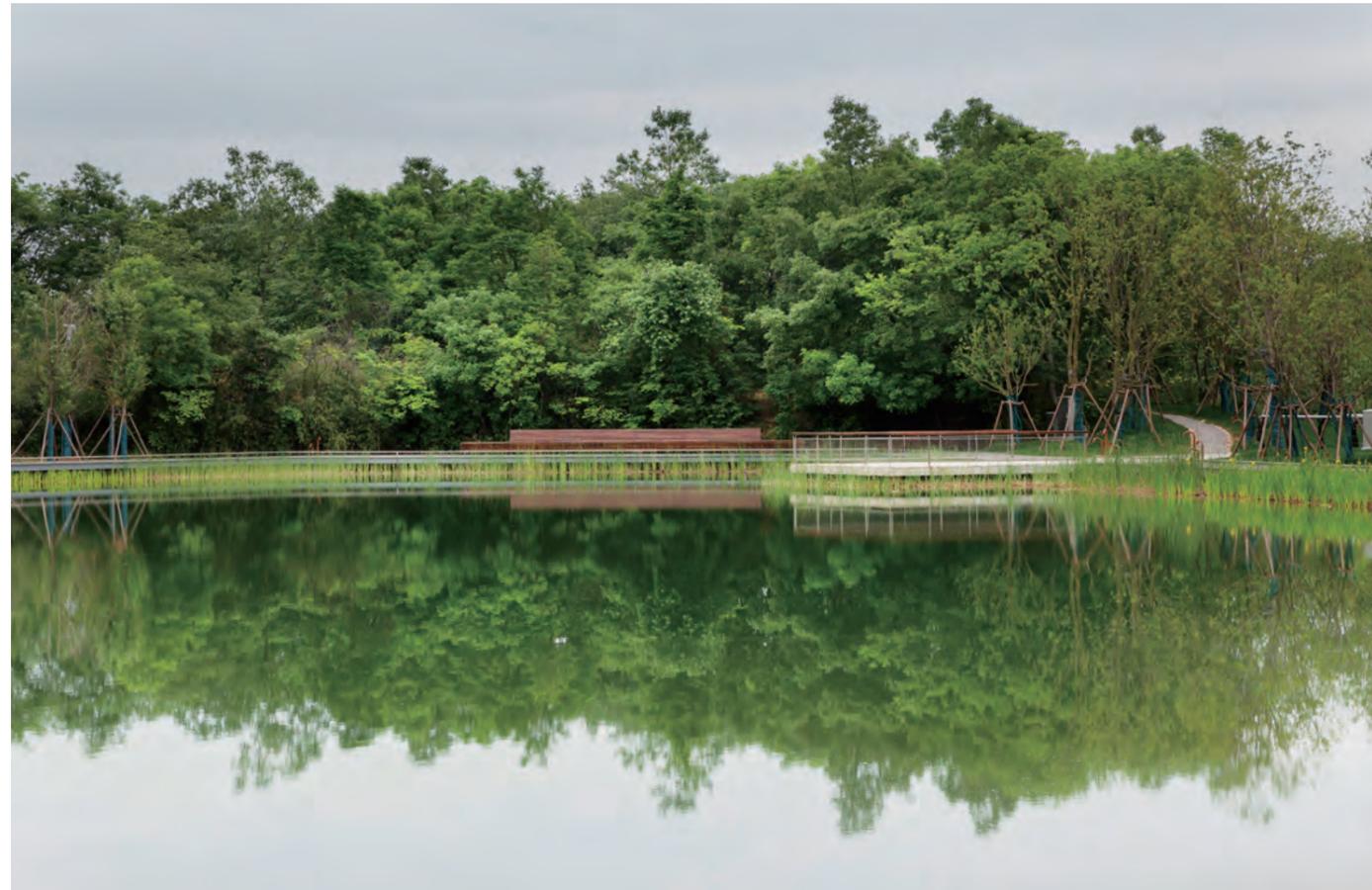


기능 배치와 생태 관리뿐 아니라 공간의 스케일과 재료는 조경 설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출해야 하는 결과물 중 하나다. 40헥타르의 부지에서 150m 높이의 산이 주는 느낌과 650m 연장의 오픈스페이스가 주는 경험을 이해해야 했다. 예를 들어, 초원은 길이가 150m에 달하고 내부의 레벨 차가 30m에 이른다. 하지만 지평선의 끝이 산과 닿아 있어 실제 규모보다 시각적으로 공간의 크기가 작게 느껴진다. 입구의 수 공간은 한때 양어장이었다. 널찍한 수면 위에 어떤 시각적 요소도 없기 때문에 실제보다 작아 보인다. 따라서 사람들이 연못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없도록 다양한 각도를 고려해 연못에 시각적 장벽을 더했다.



싼데 호수와 주변의 빗물 정원. 폭우가 내리면 빗물을 머금은 저류지가 된다.

세 구역으로 구성된 신태 호수



농경지 풍경을 연상시키는 댐

넓게 펼쳐진 완만한 경사지에 만든 꽃의 바다. 지그재그로 뻗어나가는 산책로를 만들어 풍경을 천천히 감상하도록 유도했다.





공원의 가장 높은 지점에 조성한 하늘 산책로



단순하고 현대적인 형태로 디자인한 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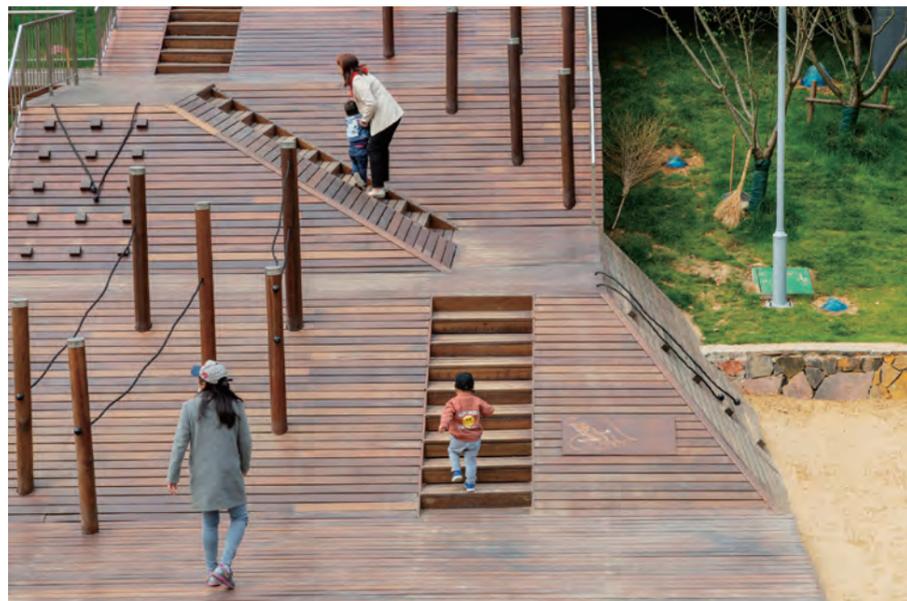
채석장 절벽을 떠올리게 하는 등반 놀이 시설

채석장의 특성을 살려 등반 놀이 시설, 미끄럼틀, 그네, 트램펄린으로 구성된 마이닝 플레이스케이프라는 놀이터를 만들었다.



공중 보도와 동일하게
코르틴 스틸로 만든 그네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시설을 구비했다.



마이닝 플레이스케이프의 북쪽에 자리 잡은 대형 트램펄린.
산자락에 놓여 있어 놀면서 자연을 학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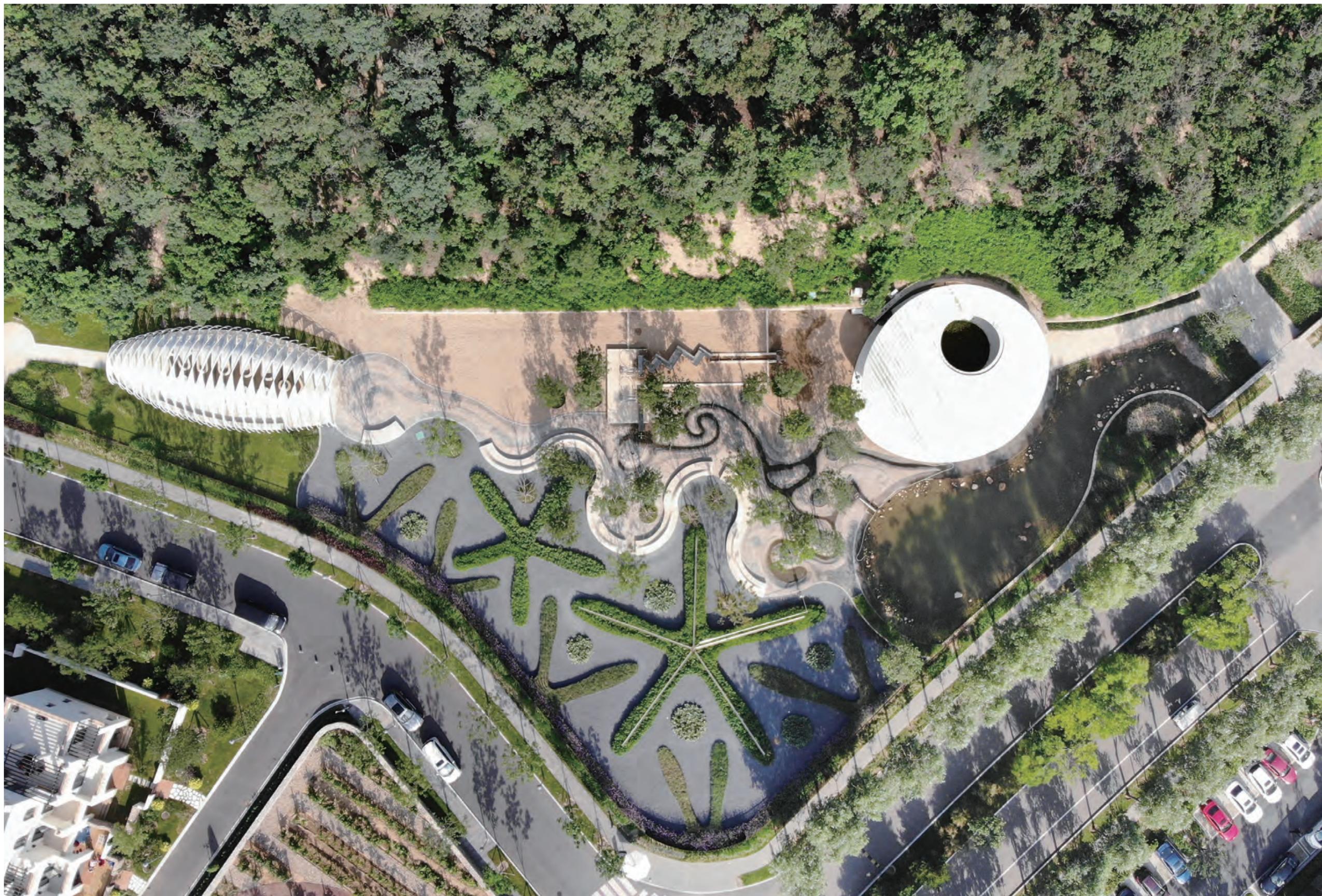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도시공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토지 가치를 높이고 부동산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단기 목적으로 진행된 개발에는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난징의 탕산 채석 공원은 온천 호텔, 레스토랑, 뮤직 페스티벌, 가족과 이웃을 위한 놀이 공간 등 다양한 공간과 수익 시설을 갖추고 있어 관리가 용이하다. 이 공원은 중국 지역 사회를 위한 도시공원의 모델을 대

표하게 될 것이다.

녹지와 흙으로 지오셀(Geo-cells)을 덮어 자연을 개선하는 방식은 많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효과를 일으켜 늘 논란을 야기한다. 당장의 실수를 숨기는 일은 정교하지 못한 개발을 일으킬 뿐이다. 탕산 채석 공원은 사람들이 어떻게 환경 문제를 다루고 더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육 공간이 될 것이다. 번역 심자수 진행 김모아 디자인 펍션민



아라야 공원

Aranya Park

Z+T

글 Z+T

Landscape Architect Z+T Studio, Landscape Architecture
Lead Designer Zhang Dong, Tang Ziying
Designer Team Zhang Qing, Chen Yifan, Gu Xinjun, Xi Qi, Yang Yupeng, Wang Qi
Installation Design Z+T Art Studio
Designer Team Liu Hongchao, Sun Chuan, Zheng Jialin, Fan Yanjie, Hu Yihao
Location Qinhuangdao, China
Area 7.4ha
Completion 2018. 6.
Photograph Zhang Hai

아란야 공원Aranya Park은 중국 북동부 대규모 해안 도시의 중심인 칭황다오Qinhuangdao 시에 자리 잡고 있다.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고 지역 유산인 녹지를 공공 자산으로 전환하여 조성한 공원이다. 중국에서 생태 관광은 흔히 경제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이용되지만, 이 공원은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실험이자 사례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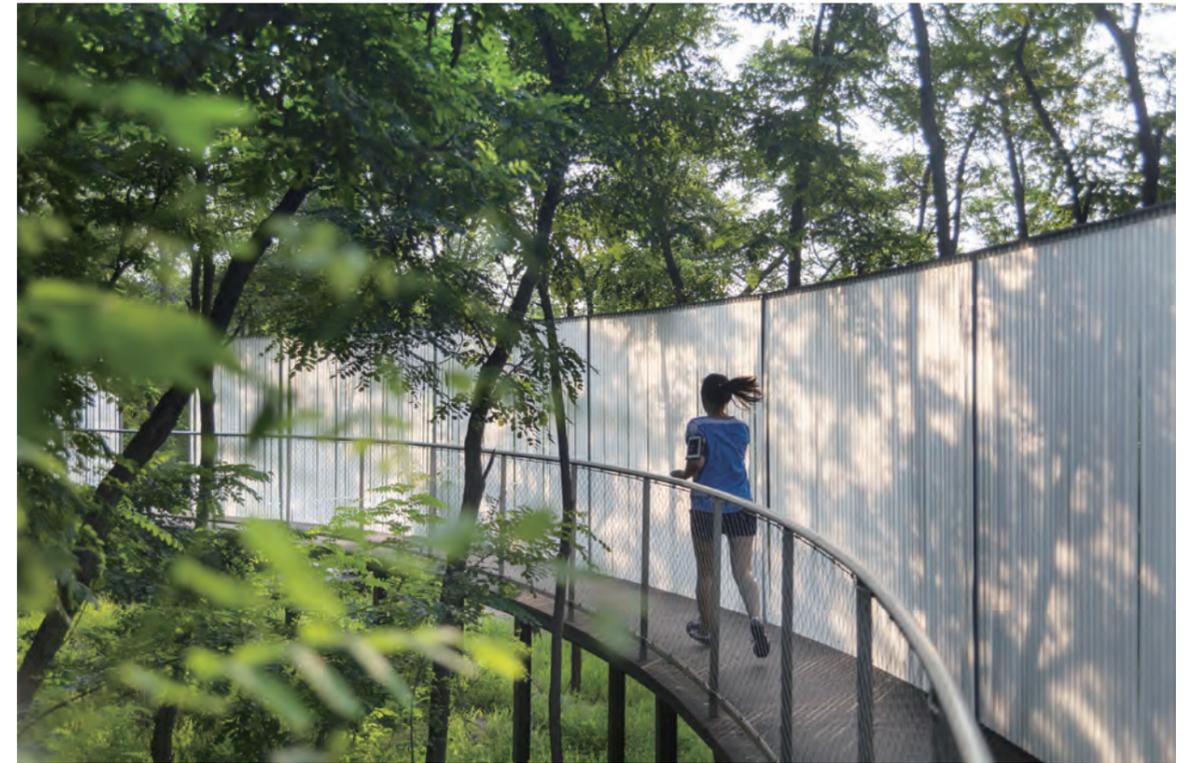
중국 북동부의 해안 경관은 혹독한 기후와 염분 및 모래로 구성된 토양으로 인해 신중하게 다뤄져왔다. 50여 년 전 칭황다오 시는 해안 재조리를 위한 환경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토지 복구를 위해 사구에 식재된 아까시나무는 오랜 시간에 걸쳐 독특하지만 매우 약한 해안 산림 생태계를 만들었다.

50년 전 복원 프로젝트의 사명은 단순했고 설계 시 인간의 활동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근처 대도시의 관광객과 휴양객이 칭황다오 해안으로 몰려들었다. 큰 변화 속에서 기존 생태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현실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일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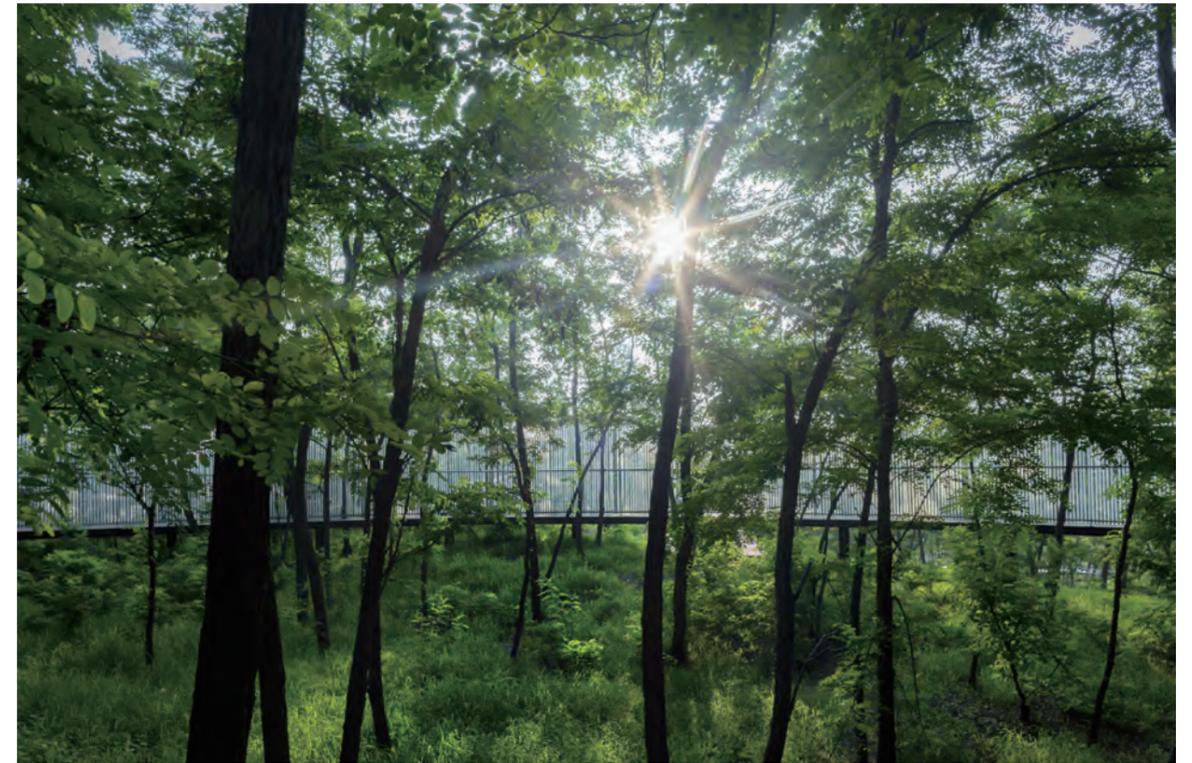


아란야 공원은 해안 재조리를 위한 환경 복원 프로젝트로 시작했다.

- | | | |
|---------------|-------------|-------------|
| 1. 숲 입구 | 6. 습지 정원 | 11. 놀이터 |
| 2. 물고기 뼈 파빌리온 | 7. 셀 카페 바 | 12. 문어 미끄럼틀 |
| 3. 불가사리 농장 | 8. 농장 입구 | 13. 숲 보행로 |
| 4. 물 놀이터 | 9. 도르래 놀이터 | |
| 5. 라이팅 링 | 10. 소라고동 조각 | |



숲 내부에 360도로 산림지를 전망할 수 있는 원형 보행교를 설치했다.



반투명 아크릴 기둥 스크린은 고요한 안뜰 같은 공간감을 만든다.

도보 통행을 허용하되 숲 내 토양에 직접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공중 통행로를 만들었다.



전략

아란야 공원에는 아까시나무 숲이 있다. 지난 수년간 지반은 토양 염분화로 악화되었고 불충분한 생태 복원과 유지·관리로 인해 방풍림 역할도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여가 활동이 지역 사회의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훼손된 해안 산림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일련의 전략을 세우고 실행했다.

숲 보호: 사구 방향 진입로에서 숲으로 바로 들어오는 동선이 생태계를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도보 통행을 허용하되 숲 내 토양에 직접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는 통행 체계를 제안했다. 두 길의 교차점에

라이팅 링(Lighting Ring)이라는 360도로 산림지를 전망할 수 있는 원형 보행교를 설치했다. 이 구간은 반투명 아크릴 기둥 스크린으로 둘러싸여 있다. 아크릴 기둥은 고요한 안들 같은 공간감을 형성하고, 반투명 스크린은 바람의 미묘한 소리와 더불어 빛과 그림자를 포착한다. 보행자에게 숲에서의 극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토양 정화: 체계적 복원을 위해서 방풍 기능을 보존하고 자생종인 아까시나무를 추가 식재했으며, 생화학적 방식의 토양 개량과 척박한 토양 복원을 위한 관개와 배수 개선을 진행했다. 무너져가던 숲의 토양이 안정됐고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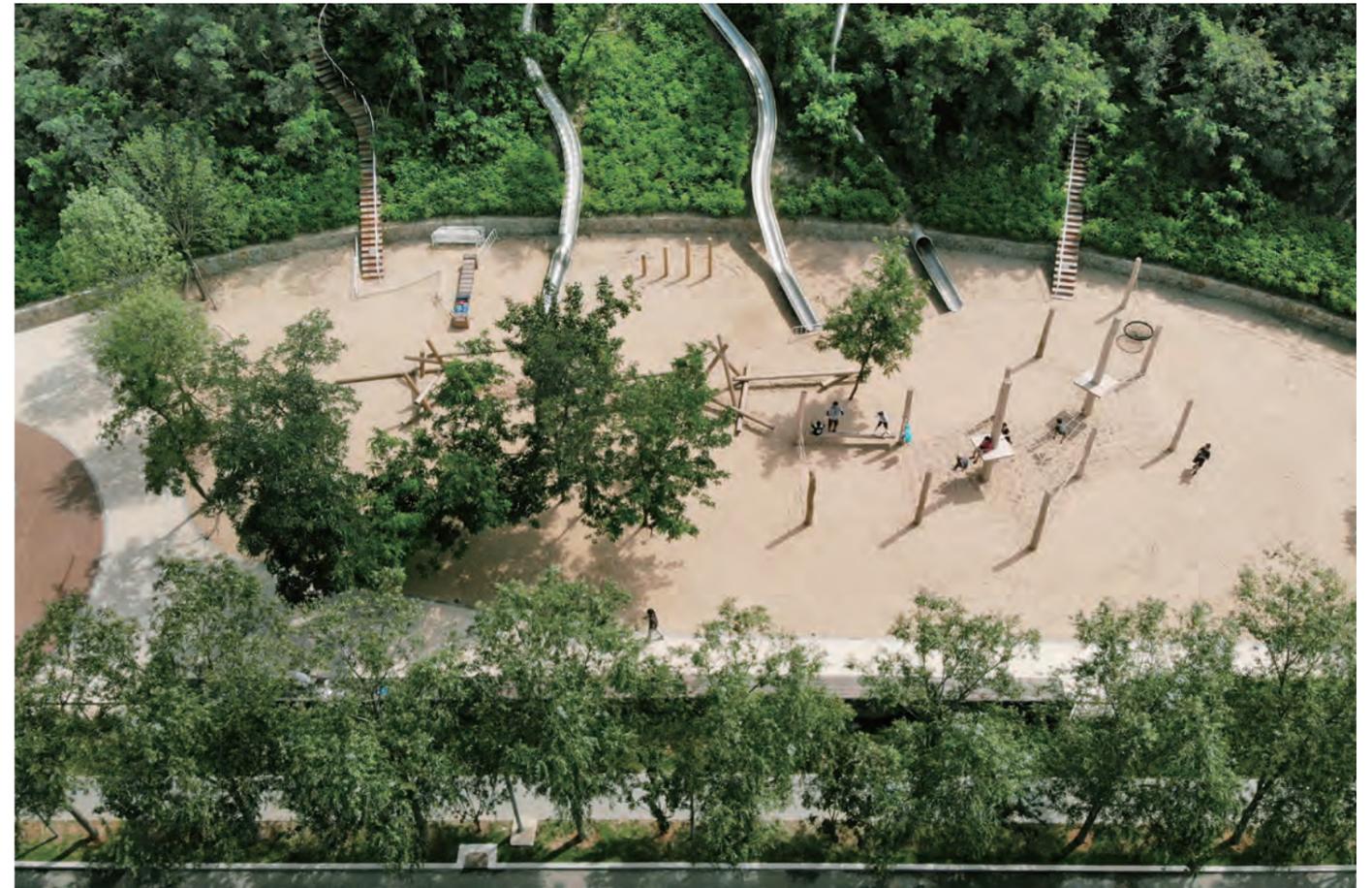
계단과 미끄럼틀은 생태계를 보존하는 동시에 놀이터 기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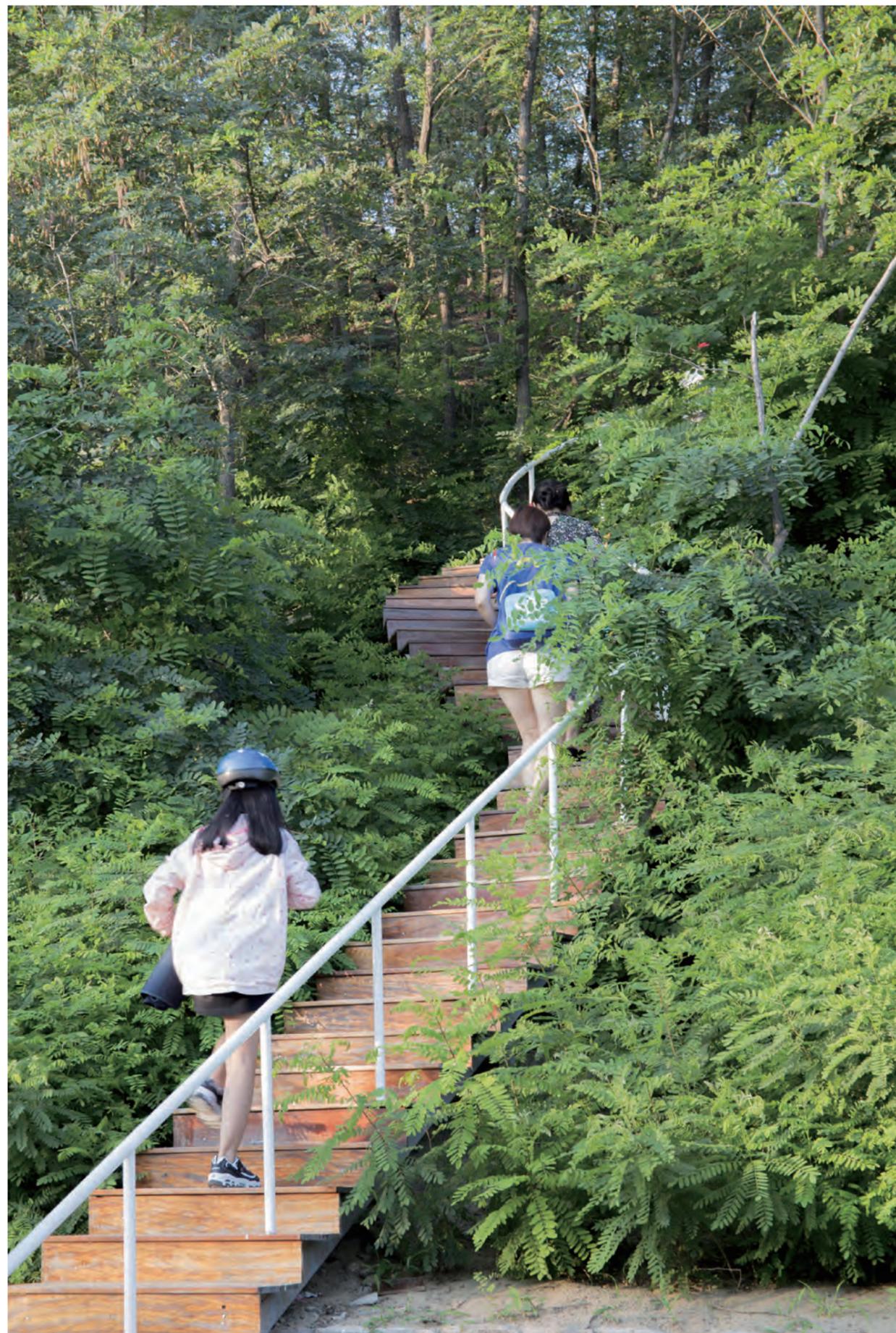


숲의 토양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성된 습지 정원



아이들이 뛰어놀 놀이터를 조성했고, 경사로에 3개의 스테인리스 미끄럼틀과 2개의 경량 계단을 놓아 동선을 만들었다.





지형 특징을 활용해 모래밭, 습지 정원, 물 놀이터 등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했다.



물고기 뼈 형상의 파빌리온



불가사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조성한 농장

도시에서 오는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이 작물을 직접 보고 농사를 체험할 수 있다.



습지 정원. 불가사리 농장의 관개 시스템과 연계된 물 놀이터에 카페를 설치했다.



저영향 설계: 저영향 설계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의 잠재력이 제공하는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다. 개발을 위해 모래와 흙을 채취하면서 사구 내 숲과 도로 사이에 폭이 좁은 틈이 생겼다. 지형이 갖는 이점을 활용해 미끄럼틀, 모래밭, 습지 정원, 물 놀이터 등 여가 공간을 구성하고 틈을 안정화하기 위한 공학적 조치를 했다.

환경 교육: 도시에서 오는 방문객을 고려해 다양한 연

령대가 작물을 직접 보고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 텃밭을 조성했다. 해양 생물에서 영감을 받아 조성한 불가사리 농장, 물고기 뼈 파빌리온, 파도 운하가 공간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자연과 인공 요소의 결합은 독특한 경관에 대한 친밀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생태계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아란야 공원을 특별하고 기억에 남을 공공 공간으로 만든다.

번역 심자수 진행 금민수 디자인 팽션민



도리 공원

Dory Park

Z+T

Z+T

Landscape Architect Z+T Studio, Landscape Architecture

Lead Designer Zhang Dong, Tang Ziying

Designer Team Zhan Qing, Yang Yupeng, Chen Yifan,
Bian Shaohao, Du Xinbo, Wang Qi, Wei Jierui

Installation Design Z+T Art Studio

Designer Team Liu Hongchao, Zheng Jialin, Fan Yanjie, Wang Hu,
Zhang Zhexin

Location Guangzhou, China

Area 1.67ha

Completion 201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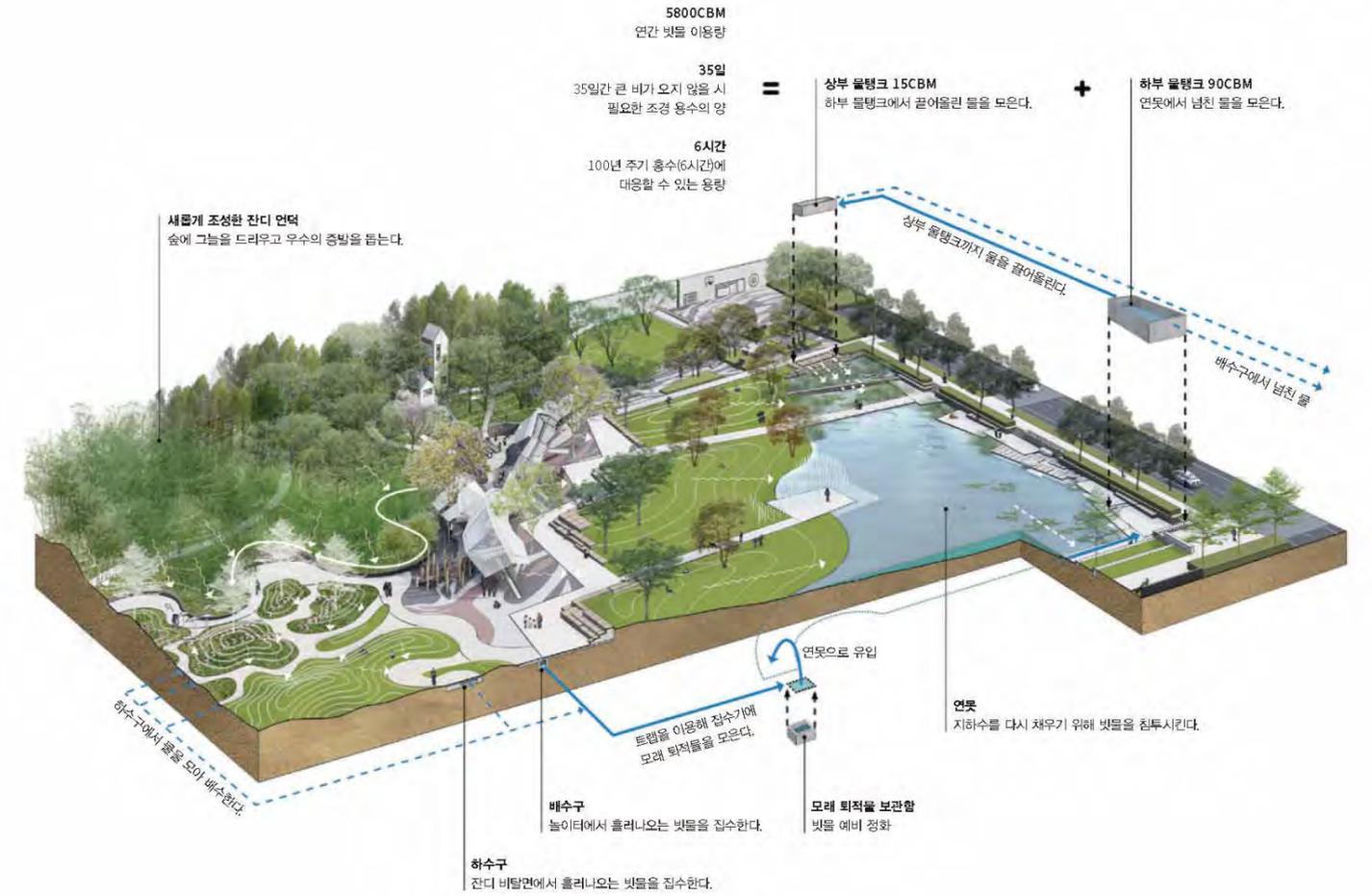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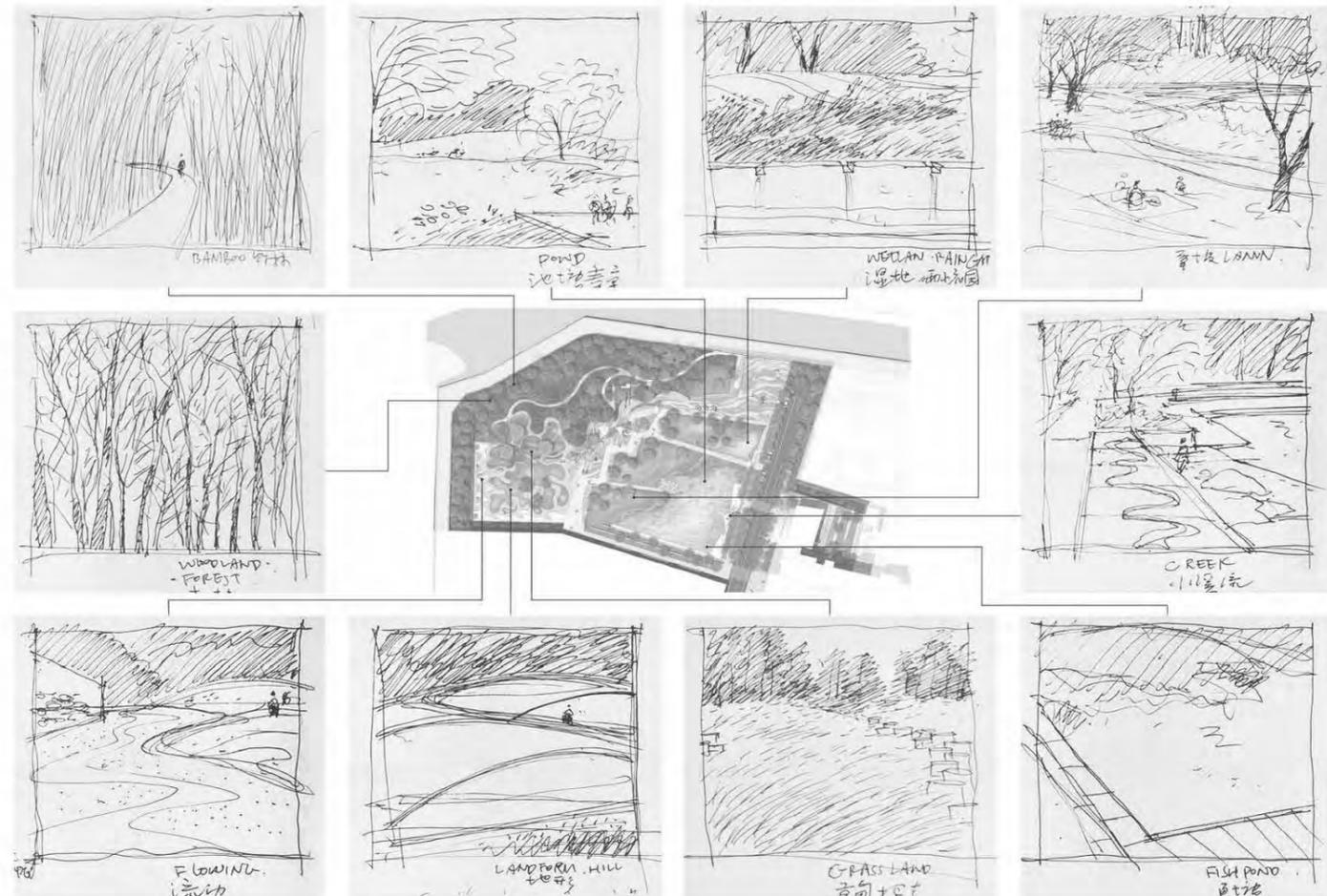
Photographs Zhang Hai, Lu Bing

인구 밀도가 높고 인프라가 노후된 도시는 더 나은 생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도시를 둘러싼 농업 용지가 도시화 과정에서 여가를 위한 커뮤니티 공원으로 재편되기도 한다.

도리공원Dory Park은 중국 남부 대도시인 광저우의 바이윈Bayun 산에서 서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커뮤니티 공원이다. 처음 대상지에 도착했을 때, 얼마 전 개발된 인근의 평범한 오픈스페이스로 인해 장소의 역사성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다른 블록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의료 액세서리, 장갑, 지퍼를 파는 작은 가게들이 북쪽에 즐비했고, 이를 통해 과거 대상지의 역사를 엿볼 수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연못은 격자무늬를 띠며 독특한 질감이 느껴지고 색감은 추상화를 연상시킨다.



장검다리는 연못과 공간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한다.







가늘고 긴 흰색 기둥을 세워 물고기 형태를 만들었다.

양식장으로 이용된 과거를 엿볼 수 있도록 연못을 보존했다.



기대어 쉬거나 놀 수 있는
진디 연못



미래의 숲

지난 몇 년 동안 양식장으로 활용했던 부지를 조망하니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 항공 사진으로 본 연못은 격자무늬를 띠고 있고 독특한 질감이 느껴지며 색감은 추상화를 연상시켰다. 물고기는 연못에서 자라며 알을 낳고 물고기 소매상은 알을 구입해 물고기로 키워 시장에 판매했는데, 이 단순한 절차는 지역을 대표하는 농법을 보여 준다. 숲에서 농경지로, 연못으로, 공장으로 바뀐 경관을 숲

으로 변화시켜 원래 모습을 되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양식장과 양식 과정을 설계를 통해 재현했다. 급격한 개발로 긴 역사를 갖지는 못했지만 대상지의 맥락은 기억될 만한 가치가 충분했다. 커뮤니티 주택을 디자인하는 일본 건축가 소우 후지모토Sou Fujimoto는 녹색으로 뒤덮인 공간을 '미래의 숲'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물고기의 형태를 공원의 핵심 디자인 언어로 활용하면서 대상지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요소로 물을 이용했다.



지붕의 곡선이 물고기 형태를 만들어낸다.
지붕 아래 미끄럼틀, 모래사장, 나무 울타리를 설치해
놀이터를 조성했다.

진디 언덕 뒤편에 만든 습지



공원 곳곳에 대상지의 역사를 상징하는
물고기 형태의 사설물과 장식품을 배치했다.

커뮤니티 공원

설계는 미래의 토지 이용, 시설 구축, 건설, 교통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며, 이는 초기 개념 구상 단계부터 고려해야 하는 대상이다.

디자인 레이아웃, 도로 체계, 진입로는 다양한 기능을 구분하는 경계로 작용할 수 있다. 우수 관리와 유출수 제어는 도리 공원의 기본적인 하수도 시스템이다. 공

원은 열대 식물이 자라기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어 종 다양성을 창출하고 미기후를 형성할 수 있다. 생태 시스템과 결합된 환경 교육 공간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도 생태계를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도리 공원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기념하는 커뮤니티 공원의 모델이 되었다. **반역 심지수 집행 이수민 디자인 콘서트**



덩윈 디스커버리 공원

Dengyun Discovery Park

Z+T

글 Z+T

Landscape Architect Z+T Studio, Landscape Architecture
Lead Designer Zhang Dong, Tang Ziyang
Designer Team Zhang Qing, Yang Yupeng, Chen Yifan, Qian Qinhe, Zhou Teng, Lou Siyuan, Wang Qi
Installation Design Z+T Art Studio
Designer Team Liu Hongchao, Zheng Jialin, Fan Yanjie, Wang Hu, Zhang Zhixin, Zhang Siyu, Zhang Yichao, Sun Chuan, Liu Binyuan
Location Fuzhou, China
Area 2ha
Completion 2020. 11.
Photographs Holi&client

덩원 디스커버리 공원Dengyun Discovery Park은 자연 속에서 상상력을 키우고 탐험하는 이들을 위해 조성됐다. 대상지는 중국 남해안 지역의 거대 도시인 푸저우 Fuzhou 교외에 있다. 부지의 표고 차가 상당히 다양한 자생 식물이 자라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기존 여건 속에서 생태계와 녹색 통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며 놀이터, 자연과 상호 작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했다.

DNA 체인

입구의 놀이터는 건설 현장에서 차량 통행을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됐던 공간이다. 이곳에 자연 탐사 여행의 시작을 상징하는 6m 높이의 DNA 체인을 설계했다. DNA와 유사한 모양을 가진 나선형 구조물이며 우주 생명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필수 원소의 형태를 참고했다. 역동적인 곡선과 거미줄 구조의 내부 공간은 우주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며 다양한 활동을 유도한다.



- | | | | |
|-----------|--------------|-------------|-------------|
| 1. 판매점 | 7. 모델룸 | 13. 스톤 | 19. 전망 플랫폼 |
| 2. 수경 광장 | 8. 샤워실 | 14. 대나무 숲 | 20. 습지 |
| 3. 중앙 관람석 | 9. DNA 체인 | 15. 슬라이드 힐리 | 21. 보행로 |
| 4. 녹나무 | 10. 유란 풀 | 16. 셀 | 22. 자동차 진입로 |
| 5. 부 출입구 | 11. 제이드 핀 분수 | 17. 광중 보행로 | 23. 주차장 |
| 6. 지붕 테라스 | 12. 돔 | 18. 덩원 전망대 | |



DNA 모양의 나선형 구조물



반사 연못인 유란 풀에서 경치를 감상하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휴식의 공원

공원 쪽으로 좀 더 이동하면 언덕 사이에 자리한 반사 연못인 유란 풀Youlan Pool을 만나게 된다. 주변이 탁 트인 유란 풀의 대각선 가장자리에서는 먼 곳의 개활지까지 볼 수 있다. 콘크리트로 만든 풀을 둘러싼 가느다란 선은 인공 수계와 밖을 구분 짓는 경계이며, 홍수가 발생하면 선의 양쪽 수면 높이가 동일해진다. 이곳은 언덕 반대편의 철골 수로와 연결된다. 여름날 사람들은 풀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그늘에서 쉬며 휴식을

취한다. 공원 순환로를 따라 놀이와 휴식 공간을 설계했다. 고사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분수 제이드 편Jade Fern에서는 더운 날씨를 식혀줄 물방울이 흩날리고, 파빌리온 돔에서는 모임을 열거나 공연을 할 수 있다. 돔의 육각형 패턴은 베일과 같이 내부와 외부를 구분 짓는다. 패턴의 스테인리스 스틸은 거울처럼 주변 환경과 사람의 모습을 반사함으로써 분리된 내부와 외부가 이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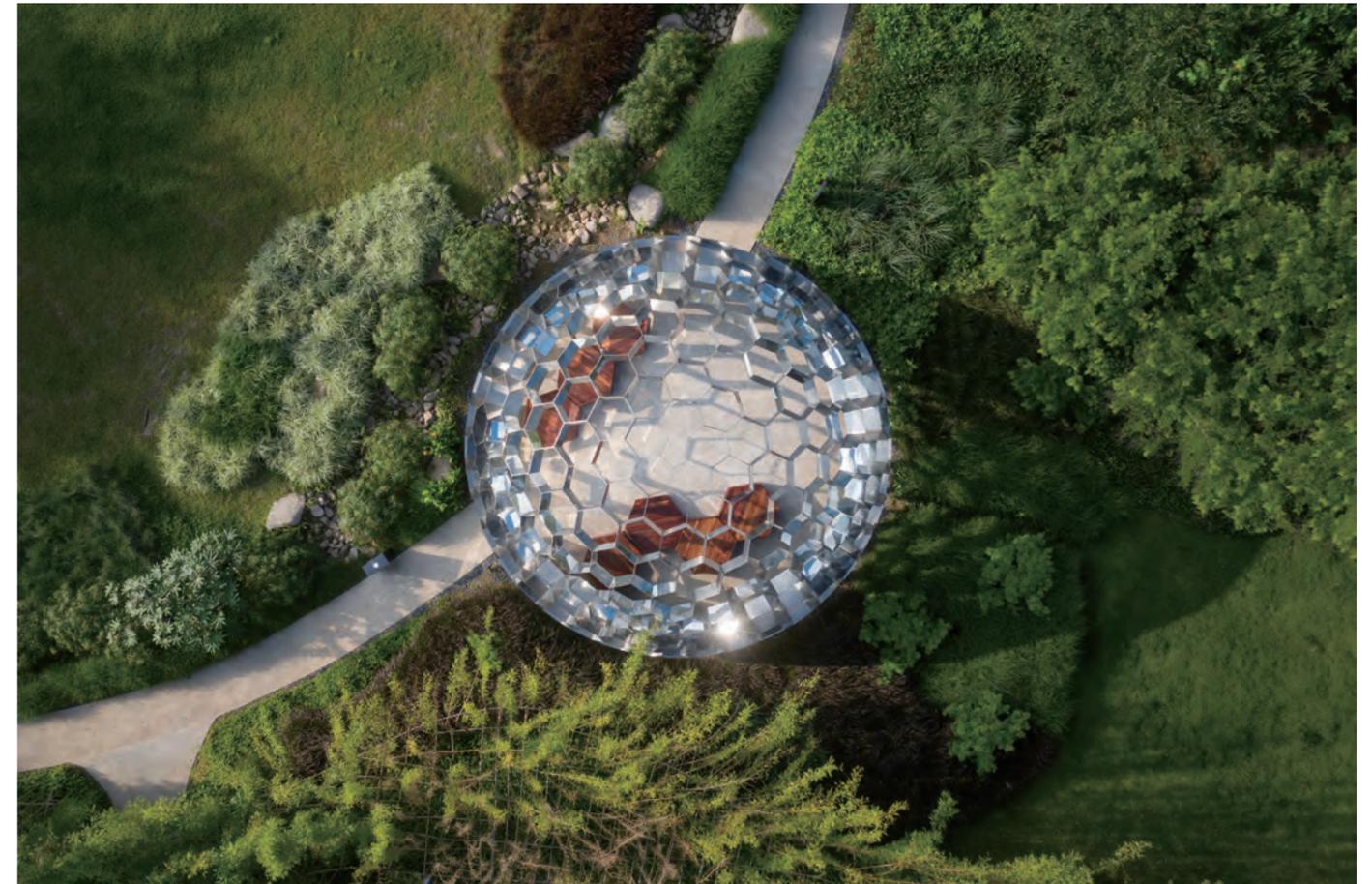
육각형 패턴 구조는 베일처럼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구분 짓는다.



고사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제이드 편 분수. 흩날리는 물방울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파빌리온 돔은 모임과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슬라이드 릴리의 끝자리에 위치한 셸은 중앙에 위치한 개방된 공간으로 언덕과 평지를 자연스럽게 잇는다.



슬라이드 릴리를 뛰거나 걸어서 내려갈 수도 있고 미끄럼틀로 이용할 수도 있다.



공중 통행로를 설치함으로써 언덕의 지표 식물과 관목 등으로 형성된 생태계를 보호한다.

슬라이드 릴리와 보행로

언덕에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슬라이드 릴리Slide Lily는 단순히 놀이 기구가 아니다. 꼭대기 쪽 커다란 입구에서부터 자유롭게 걸거나 달릴 수 있고,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올 수도 있다. 미끄럼틀 끝자락에 있는 셸 shell은 공원 중앙부에 위치한 개방된 공간으로 언덕과 평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모임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물결 모양 지형은 사람들이 앉거나 누울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배수에도 도움을 준다. 도로 인근 공원 남쪽 가장자리의 언덕 꼭대기에 보행자 다리를 설계했다. 강철 패널의 공중 보행로는 지표 식물과 관목을 보호하며 언덕 위의 나무가 형성하는 생태계를 보존한다. 정상에서 정글을 가로질러 걸거나 자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호수와 산을 더 잘 조망할 수 있다. 번역 안효균 진행 금민수 디자인 뽕선민

명원 전망대에서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